

\* 박수현

목차

Abstract

I. 서론

II. 홀리스틱 교육의 개념과 영성교육

1. 홀리스틱 교육의 개념
2. 홀리스틱 교육과 영성교육

III. 홀리스틱 무용교육의 목표

1. 홀리스틱 무용교육에서의 영성
2. 영성 중심 홀리스틱 무용교육의 목표

IV. 결론

참고문헌

\*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논문투고일 : 2015.04.30.

심사일 : 2015.05.30.

게재확정일 : 2015.06.5.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holistic spiritual education and dance education

---

Park, Soo-hyu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modern education is based on the philosophy of modernism and atomism. Because of that, value-free ideas, banking education, the crisis of ecological system occurred. It is required to start the humanistic education that emphasizes the meaning of life and introspective perception. 'Holistic Education', which came from holistic paradigm, insists connection, inclusiveness, and wholeness of human education. Therefore, holistic education cultivates body, mind, emotion, creativity, spirituality, aesthetic education and ecologic ideas.

Dance can awake the spirituality in one's mind and bring community together. 'Holistic Dance Education' shares the idea with holistic education. Holistic dance education aims at cultivating body, emotion, intelligence, creativity, spirituality, ecologic ideas, connection, inclusiveness, and community through dance. Each goal is not separated but connected to each other. Spirituality exists as the center of holistic education and holistic dance education.

**key words** > holistic education, holistic dance education, spirituality, intelligence, emotion, creativity, ecology

**주요어** >> 홀리스틱 교육, 홀리스틱무용교육, 영성, 지성, 감정, 창의성, 생태학

근대와 현대의 교육은 경제발달, 과학발달, 문명발달을 실현하였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많은 부작용도 가져오게 되었다. 모더니즘의 분석적이고 이원론적인 근대교육철학은 세계를 단절된 것으로 보고 분석적, 지식 습득형,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하였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생태위기, 과학기술의 남용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올바른 마음, 전체를 보는 눈, 자신과 우주의 숭고함을 깨닫는 것 같은 마음이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다고 하겠다. 참된 교육의 목적은 전시대의 지식과 유산을 전달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찾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 없이 쌓은 지식은 분절적 지식이 될 뿐이며, 가치중립적인 지식은 오용되고 남용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교육이 ‘이끌어내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educare’를 어원으로 하듯이, 교육은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으로서의 창조성, 지성, 자신에 대한 앎, 다른 이와와 관계맺음, 우주와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맺음과 같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외부의 조건 혹은 감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고 다른 이와와 관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인간성을 실현하고 가치를 찾는 행복한 인간이 형성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교육이다. 40년 이상 하버드 졸업생인 연구대상자들의 삶을 추적한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의 조지 베일런트(Vaillant, G. E., 2010:18) 따르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탄력성, 영성, 사랑 등이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근래의 교육현장에서도 다시 전인교육,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학생의 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자신의 내부에 갖고 있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염원을 충만시킬 수 있는 홀리스틱 교육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더니즘과 분석적이고 이원론적인 현대 교육철학의 사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홀리스틱 교육은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긍정적인 마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힘,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법,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법, 개인의 영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교육 패러다임이다.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활발한 담론이 되고 있는 홀리스틱 교육은 의학에서 출발하여 교육적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학생의 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신체, 감정, 창의/직관, 미적, 영성 등 전체적인 존재에 관계를 갖게 하려는 교육이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 **connection**, 조화와 통합성 **inclusiveness**, 전일성 **wholeness**을 기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전인교육,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 영성교육, 생태교육, 기존교과와의 통합교육, 평생교육 등을 추구하며 다양한 동서양의 과거와 현재의 교육철학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기저를 넓혀가고 있다(송민영, 2006:7-9).

홀리스틱 교육이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면서 이의 실천을 위해 예술교육과 신체활동이 장려되고 있다. 무용교육은 그 어떠한 교육보다 이미 홀리스틱 **holistic**하며 전일성 **wholeness**을 지니고 있다. 무용은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경험하게 하며,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통해 자신과 자신 그리고 사회와 자신간의 유기적 통일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집중과 몰입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을 느끼게 하며, 다원적 사고, 물질보다는 인간 정신의 고양에 삶의 초점을 맞추는 의식의 변화(한혜리, 2013:3-46)등을 가져온다.

‘홀리스틱 무용교육 **holistic dance education**’이란 무용을 통해서 하나의 전체로 통합된 자신에 대한 전일적인 앎까지 가져오게 하는 교육으로 위기의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본질과 참자아를 깨닫고 다른 이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인간은 무용을 통해서 자신과 사회를 이해, 체험, 탐구하고 표현하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앎을 실천하고, 다른 이와 관계 맺고, 자신과 우주를 통합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홀리스틱 교육이 신체교육, 감정교육, 창의/직관교육, 미적교육, 영성교육, 생명교육,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 **connection**교육, 조화와 통합교육 **inclusiveness**, 전일성 **wholeness**을 기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지만 그 중심에는 ‘영성’이 있듯이 홀리스틱 무용교육도 그러하다는 가설 아래에 홀리스틱 무용교육에서의 영성의 의미와 이를 중심으로 한 홀리스틱 무용교육의 목표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동안 무용분야의 논문을 보면 비판적 사고(박종길, 2007; 김주자, 1999), 감성(복미경, 2003; 정강운, 2006; 유인실, 2008; 김은우, 2013), 창의성(안병순, 2005; 오레지나, 2006; 박미선, 2006; 육난희, 2015), 생태성(오레지나, 2010; 이유진, 2013; 박지영외, 2014; 김옥희, 2014), 신명이나 카타르시스(차수정, 2008; 이미영, 2010; 백현순, 2008; 김말복, 2013)등과 같은 무용교육의 각 목표들이 따로 연구되었는데, 홀리스틱 무용교육의 관점에서는 각 목표들이

분절적으로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성’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무용교육자들이 수업을 할 때에 홀리스틱한 무용교육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대상과 연령에 맞게 수업을 구성한다면 자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맺음을 다양화 하고, 존재론적이며 영성적인 삶에서 행복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Ⅱ. 홀리스틱 교육의 개념과 영성교육

### 1. 홀리스틱 교육의 개념

홀리스틱 교육의 홀리스틱(holistic)은 홀리즘(holism: 전체론)적인이란 뜻으로, 그리스어의 ‘홀로스(holos)’를 어원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whole), 건강(health), 낫게하다(heal), 신성한(holy) 등의 파생어를 지닌다(송민영, 2006:7-17). 스머츠의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라는 개념과 ‘모든 사람의 최종 목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한 Huxley, A.(1970)의 ‘영원철학 perennial philosophy’에 영향을 받은 교육이념으로, 하나의 교육과정도 아니고 커리큘럼도 아닌 교육계의 거대담론이다. 영원의 철학은 여러 종교 속에 보편적으로 감추어진 ‘비전의 핵심(esoteric core)’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철학이다. 라이프니츠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인간의 영혼에서 ‘신성한 실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심리학이며, 모든 존재의 내재적 이면서 초월적인 바탕에 대한 앎을 최종 목표에 두는 윤리학으로 모든 고등종교에서 완전하게 발달된 형태를 찾을 수 있다(Huxley, A., 2014:19-4).

홀리스틱 교육은 교육을 통해 지성, 정서, 사회, 신체, 창의/직관, 미적, 영혼의 다양한 측면을 지닌 인간의 전인적 발달, 관계와 공동체, 인간의 영적 측면까지 배양하고자 한다(명지원, 2000:1-16). 통합교육, 명상적 방법(contemplative practices), 창조적 방법(creative means)들을 다양하게 수용하는 교수적 접근이며(민경숙, 2013:97-100), 어느 특정한 커리큘럼이나 방법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교육방식을 포괄한다. 홀리스틱 교육의 철학은 원자론 atomism,

과학주의scientism, 환원주의reductionism, 실증주의positivism, 실용주의pragmatism에 입각하여 전체를 쪼개고 나누어 부분들로 설명하고자 했던 교육 패러다임과는 상반된다. 전체를 뜻하는 ‘홀리즘’을 바탕으로 하므로 개인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미적, 창의/직관, 영적 측면까지 교육의 요소로 인정하는 교육학적 움직임으로(민경숙, 2013:97, 송민영, 2006:54), 몬테소리, 슈타이너, 퇴계이황, 키에르케고르, 켄윌버 등과 같은 교육학, 심리학 학자들의 철학을 수용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흡수하며 그 뜻이 재정비되고 확대되고 있다.

홀리스틱 교육holistic education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 생태계와의 관계 등 ‘관계성connection’을 중시하는 교육으로서 그 속에서의 ‘조화balance, 통합성inclusiveness’를 추구하고 있다. 홀리스틱 교육은 신체성, 감성, 지성, 사회성, 미적 감수성 등을 골고루 배양하는 전인교육whole-person education, 창의성 교육creativity education, 영성교육spirituality education, 생명·생태교육bio-eco education, 통합교육integrated curriculum,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등을 추구하고, 교육학 내에서의 활발한 대화intra-disciplinary dialogue와 다양한 학문들과의 대화inter-disciplinary를 통해 그 학문성과 실천방법을 확대하고 있다. 각 교육의 의미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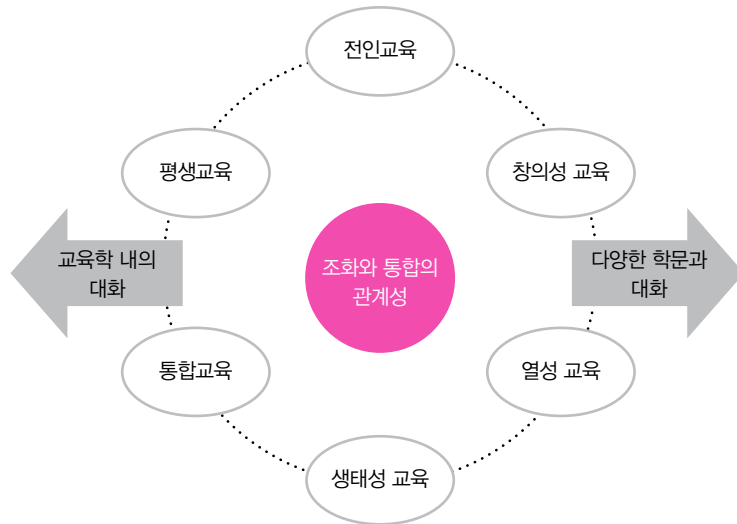


그림 1. 홀리스틱 교육의 범위

## 2. 홀리스틱 교육과 영성교육

홀리스틱 교육이 여타의 다른 진보적인 대안교육과 다른 점은 ‘영성교육’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모더니즘적인 교육은 전인적 존재인 인간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조화로운 인간의 필수적인 조건인 영적 차원을 도외시하였다(명지원, 2014:51). 만물은 신 가운데, 신에 의해 존재하며 신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고 또 거기에 그 본질을 간직하고 있다(Froebel, F. W. A., 1995:2)고 주장한 프뢰벨, 인간의 영혼을 중시한 슈타이너,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우주교육을 중시한 몬테소리와 같은 교육학자들은 홀리스틱 교육의 패러다임을 실천한 교육자로 여겨지는데, 이들 교육관의 바탕에는 ‘영성적 인간 이해’가 있었다.

홀리스틱 교육론자들은 특정 종교나 교의에 치우치는 일이 없이 ‘영성’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각 종교의 차이점 보다는 유사점에 주목하며 종교성이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을 배양하고자 한다. 미션스쿨에서는 종교성을 살려 영성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일반 학교에서는 일반적 영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송민영, 2006:240-241).

영성 spirituality이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정치적 삶을 포괄하는 전체로서의 인간의 삶에 관여하며 경험적이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홀리스틱 교육의 영성에 대한 입장은 산드라 슈나이더스가 ‘개인이 감지하는 궁극적 가치를 향해 자기초월의 견지에서 통합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체험’이라고 본 것(Schneiders, S. M., 1989:692)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영성은 홀리스틱 교육에서 신체적, 지성적 요소의 밑그림이며 여러 가지 존재차원의 근본으로 여겨진다(명지원, 2014:56). ‘홀리스틱 교육 전망’에서는 교육에서 영성 차원의 인식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Flake, C. L., 1993:246).

‘교육은 인간 생명의 중요한 마음, 정신, 혼과 관련된다. 모든 사람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스러운 영적인 존재이며, 그 개성을 천부의 재능이나 능력, 직관이나 지성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생명 속에서 모든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영성과 영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인 통합성, 관계성, 공동체성을 포괄하는 것이다. 통합성은 영적 경험을 하는 모든 차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영성이 본성, 감성, 이성의 품성을 포괄하며 전인적인 인간성의 발달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성은 인간과 초월적 실재와의 관계성을 말하는데, 감각

현상을 초월하는 실재 reality와 존재의 심층 수준에서 관계 맺고자 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새로운 자기자각을 하게하고 초월적 실재와 관계 맺게 하는 특성이다. 공동체성은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함께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으로 전체를 위한 사랑, 책임감, 연대의식 등으로 표현되게 된다(김현규, 2014:76). 몸이나 지성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활용한 자아의 모습은 그 총합보다 위대한데, 인식 대상인 세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Palmer, P. J., 2009:51).

### Ⅲ. 홀리스틱 무용교육의 목표

#### 1. 홀리스틱 무용교육에서의 영성

영적인 모험으로서 예술 활동을 인식하는 것은 홀리스틱 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데(민정숙, 2013:99), 홀리스틱 무용교육의 가장 큰 특징도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Read, H.가 『예술을 통한 교육(1943)』에서 예술이라는 방법을 교육의 기초로 삼아야 평화로운 사회가 된다고 주장하였고 슈타이너가 발도르프 교육에서 예술을 중심으로 모든 교과를 구성하였듯이, 예술은 무엇을 배우기 위해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교육 전체를 관철하는 원리가 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무용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홀리스틱한 발전을 이루어낸다.

영성spirituality이란 영과 영혼의 개념인 ‘spirit’ 과 ‘soul’로부터 연원하여 생긴 단어인데, spirit은 그리스어로 쓰여진 신약성서에서는 숨, 바람, 목숨을 나타내는 프뉴마(pneuma)로,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구약성서에는 영, 호흡, 바람을 뜻하는 루아흐(ruach)로부터 비롯하였다(김경주, 2013:48). 영성이란 신비로운 삶에 의한 초월적 체험이다. 무용에서는 몰입을 통하여 초월적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 때 나타나는 영성의 의미란 아래와 같다.

‘지금 여기’



무용은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지만 앞과 뒤의 장면들은 나타나지 않은 채 오직 현재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예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현재에 충실하며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전체의 작은 한 조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전체이다.

### ‘초월적 자아 발견’

슈나이더스는 ‘영성이란 자기 초월을 통하여 삶을 통합life integration하는 과제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영희(1999:9)는 끊임 없이 내적 호흡을 쌓는다면 ‘나’라는 개체와 ‘우주’의 경계를 잊어버리고 춤을 출 수 있게 되며 이것은 일상적인 속세의 세계에서 성聖의 세계를 잠시나마 맞볼 수 있는 계기이며 지고의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하였다. 무용 움직임에 몰입하게 되면 자신이 이 세상에 떨어진 존재가 아닌 우주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는 내 안의 신성神聖을 발견하는 것이며, 동양의 사상에서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의미하고,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브라만이 깨달은 자 내면에 있다’는 범아일여梵我一如 사상으로 나타난다(김말복, 2013:7-8).

### ‘나와 타인을 받아들이기’

홀리스틱 무용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성과 전체성을 인식하면, 자신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무용을 통해 자신을 ‘수용’하는 것, 즉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참 나 찾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박혜연, 2013:170-175). 참 나를 알게 되면 타인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 ‘신명’

몰입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기쁨을 가져다준다(Csikszentmihalyi, M., 2011:108-120). 무용에 집중하며 몰입하는 행위는 자신의 몸 안에 갇혀있는 자아가 아닌 무념무상의 상태, 신명神明的 상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여기에서의 신명은 무속적인 세계관에 의한 신들림을 의미하는 신명이 아니라 성리학적 세계관에 기초한 것으로 조동일의 ‘깨어있고 밝은 마음가짐이 힘차게 움직이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김말복, 2013:14). 산드라 슈나이더스는 ‘영성’이란 용어가 ‘영적인 삶’을 의미하며, 이 영적인 삶이 일어나는 장소는 ‘인간의 역동성 자체’가 된다고 하였다(Schneiders, S. M., 1989:692).

## 2. 영성 중심 홀리스틱 무용교육의 목표

홀리스틱 무용교육에서의 인간은 영적 존재로 '자기 인식'에서 출발하여 '진정한 생명의 충일감'인 자기초월을 통하여 삶의 통합과 완성을 지향하며,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서 우주적 연대까지 확장된다. 홀리스틱 무용교육에서는 통합성, 관계성, 생태성, 몸성, 지성, 감성, 창의성과 같은 여러 목표들이 영성을 중심으로 전일적으로 발전된다고 할 수 있다.

홀리스틱 무용교육은 존 밀러가 제시한 홀리스틱 교육의 전달, 교류, 변용의 '통합교육'을 지향한다. Miller, J.P.는 홀리스틱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전달transmission, 교류transaction, 변용transformation의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전달은 학습자들이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고 축적시키는 모방과 반복에 의한 학습으로, 전통적인 학과목의 숙달을 강조하며 학생들은 기술, 가치, 사실 등을 배운다. 교류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이나 교사와의 상호대화를 통해 지식을 구성해나간다는 관점으로 실용주의에 입각한 '탐구학습'이나 '문제해결 학습'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교사와 학생 간에 분석적 사고와 같은 인지적 상호성이 증대되는데, 이는 학습자를 이성적이고 지적인 문제해결자로 보는 것이다. 변용 입장은 교육과정과 학생을 분리하여 보지 않으므로 학습의 목표를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에 두고, 학생들이 자기 반성적이고 메타인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문제해결과정, 협동학습과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 변용은 또한 전달과 교류의 수업방식을 포용하며 균형과 관련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triple-trans 교수-학습방법은 통합교육의 틀을 제공한다. 전달수준에서 학습은 다른 과목의 내용과 연관 지어 통합할 수 있고 교류 수준에서는 문제해결력과 탐구를 기초로 한 접근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다양한 과목과 학과를 연결하는 것이 그 예이다. 변용에서는 하나의 개념이 중심이 되어 정보와 학문을 재구성 하는 것이다(송민영, 2006:218-221).

통합성은 좁은 의미에서는 홀리스틱 무용교육이 지향하는 것이 통합교육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감성, 지성, 창의성 등이 각각 나뉘어져서 발전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통한 영적인 몸성의 발현 안에서 통합적으로 발전하며 나타난다는 '전일적인 통합성'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몸과 마음의 일원론, 슈타이너의 육체, 정신, 영혼이 합하여진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인식, 니체의 '몸의 이성' 등은 모두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니체는 '몸의 이성' 개념을 통해 관념적인 사유의 개념에서 벗어나 몸을

통한 사유를 제시하였다(김종기, 2010:358-359). 몸이 ‘큰 이성’ 이라면 정신은 그 일부인 ‘작은 이성’ 이라는 것이다. 니체가 말한 ‘건강한 몸’은 감각과 정신과 지성과 의지와 자아와 영혼을 몸 자신으로 구현할 수 있는 영적인 몸을 의미한다(우희중 외, 2009:245).

몸은 그 자체로 이미 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몸성’은 영적인 몸의 다른 말로 정신과 육체가 통합된 전체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박수현, 2012:107). ‘몸성’은 마음과 인지, 심적 기능의 핵심이 되기도 한다. 데카르트식 심신 이원론과 정 반대되는 관점인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는 철학과 인지과학에서 대두되는 개념인데, 고전적 인지주의가 개인의 뇌 속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인지적 표상이나 정보처리를 강조한 것과는 다르게 환경과 연결되고 상호작용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행위, 즉 최상위 관리 통제자인 뇌에 의한 전반적인 통제나 계획 없이도, 지분산적인 몸 단위들의 지엽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가 조직적, 창발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심적 현상(이정모, 2012:281-286)을 말한다. 우리는 아침에 눈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 까지 신체를 움직이는데, 신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신이나 마음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체화된 인지’의 개념은 우리 몸의 감각 운동적 체험 바탕이 마음과 인지 그리고 심적 기능의 핵심이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호흡은 우리 몸의 안과 밖, 마음과 인지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홀리스틱 무용교육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명상의 방법으로 쓰여 질 수 있다. 영성 spirituality의 어원인 프뉴마pneuma는 본디 ‘숨’, ‘호흡’이라는 뜻과 ‘기’라는 뜻이 있는데, 이러한 어원은 호흡과 그로인한 자기인식과 관조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내면의 영성을 강인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적인 몸의 움직임은 감성을 깨우는데, 무용은 분노, 우울, 슬픔, 사랑, 기쁨, 즐거움, 공포, 놀라움, 혐오 등 그 밖에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부의 감정들까지 외부로 표출하게 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출하여 자신의 정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감성emotion’은 ‘움직이다’라는 의미의 ‘movere’와 ‘밖으로’라는 뜻의 접두사 ‘e’가 결합한 단어로 ‘외부로 행동을 표출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Goleman, D.(1995)은 감성지능을 자기 인식self-awareness, 정서통제emotional control, 자기 동기화self motivation, 공감empathy, 관계조절handling relationship으로 정리하였다. 홀리스틱 무용교육을 통한 ‘감성’의 고양은, 긍정적인 ‘자기인식’과 ‘자기통제’를 키워준다. ‘감성’은 이런 면에서 ‘영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자기존재에 대한 탐구인

‘영성적 인식’이 감성이나 감성지능의 발달보다 깊은 층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성은 오성의 작용만이 아닌, 지각이나 직관과 연관이 있다. 홀리스틱 무용교육에서는 ‘지성’의 작용인 ‘비판적 사고’를 지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판적 사고는 어떤 견해를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언어적, 비언어적 자료의 논리적 구조와 의미파악을 토대로 개념, 증거, 준거, 방법, 맥락을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정병훈 외, 2012:14)를 말하고 이것은 문제해결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무용 수업에서 제한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개인이 무엇인가를 표현해야 할 때 비판적 사고는 필수적인 것이다. 새로운 상황에서 지적인 사고에 의하여 적응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 마음의 평정, 인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바탕이 될 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성 또한 ‘영성’과 연관성이 있다.

자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마음의 평정과 인내는 하나의 결론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냈을 때에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게 해준다. 이것은 홀리스틱 무용교육에서 ‘지금, 여기’에 몰입하여 현재의 고민을 즐기는 법, 신명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마음,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려는 마음 등으로 강조된다.

무용에서 ‘창의성’은 그 무엇보다 몸성, 감성, 지성, 그리고 영성의 통합적인 요소로서의 측면이 강하다. 좋은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몸의 자발성과 상상력, 감정의 깊이와 주변예술에 대한 이해, 무용과 관련 깊은 문화나 지식에 대한 지성적인 분석, 그리고 자신의 무의식과 초월성 확신성과 같은 요소들이 통합해야 하는 것이다.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무용에서의 창의성은 복합적인 영역으로 한 가지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찰력, 통찰력, 상상력, 무용경험,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각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통합적인 과정을 거친다.

홀리스틱 무용교육에서 영성의 활용은 상상력과 창의성의 지평을 넓혀준다. 무용을 창작하는 과정에서는 현재와 과거의 경험, 자신의 상상력과 무의식, 새로움에 대한 도전, 기쁨과 고뇌, 집합적 무의식, 욕구의 승화 같은 것이 모두 녹아 들어가게 된다. Donah Zohar & Ian Marchal은 IQ나 EQ만으로는 인간 지능의 복잡성, 상상력과 영혼의 무한한 가능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창의성은 익숙한 것에 대한 도전이며 어떤 것들이 변화하고 개선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컴퓨터는 IQ가 높기 때문에 규칙을 잘 따르며, EQ가 높은 동물들은 상황을 잘 인식하고 반응하지만 그것들이 변화하고 개선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SQ(송민영, 2006:238)이다.

무용은 본디 공동체적 특성을 지닌다. 고대사회에서 무용은 인생의 주요한 의식이나 전쟁을 앞둔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기능을 하였다. 사교댄스나 포크댄스는 친교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신체의 접촉과 움직임의 흐름을 중시하는 현대무용에서 무용수들은 춤을 통하여 소통하게 된다. 탈춤, 강강술래와 같은 한국 민속 무용의 경우에도 공동체의 신명을 중시한다. 홀리스틱 무용교육에서의 공동체성은 좀 더 깊은 의미에서 ‘개별적인 존재가 서로가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큰 것’이라는 홀리스틱 패러다임적인 의미가 추가된 것이다. 홀리스틱 무용교육에서 무용의 목표는 자신의 기술적 완성도와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용의 공동체로서 함께 소통하는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춤을 보았을 때, 테크닉이나 기술에 대하여 점수를 매기거나 등수대로 나열하기 보다는 그 춤의 다양한 면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무용의 배경, 이미지, 의상, 분위기, 테크닉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무용 한 분야만이 아닌 총체적인 사고방식과 미적감수성을 요구한다. 공동체로서 서로 보완하고 보충해 나가면서 기술적인 면과 표현적인 면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덕목은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함께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으로, 전체를 위한 사랑, 책임감, 연대의식 등이 필요하다(김현규, 2014:76). 예를 들면, 훌륭한 창의적인 안무가는 몇몇에 불과하지만 공동체가 참여하고 협동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개인은 공동체의 긍정적인 분위기, 책임감 있는 태도, 비판적이지만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 기여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

생태성은 생명·생태주의를 이르는 말이다. 새들과 자연이 죽어버리면 봄은 더 이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담은 Carson이 지은 『침묵의 봄』은 생태계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생명주의와 생태학을 등장시키는 촉매가 되었다(송민영, 2006:136). 홀리스틱 교육의 패러다임은 생태학적 패러다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패러다임의 공통점은 부분적인 사고, 원자론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우리들 존재가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전 우주적인 전일적이고 통합적인 사고의 방식인 홀리스틱적 holistic 사고, 생태학적 ecological 사고, 시스템적 system 사고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생태학적 인식은 세상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로 묶인 것,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으로 바라보게 한다. 생태학적 위기는 인간의 욕망이 문화의 중심이 되면서 소비주의, 상업주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팽배하여 나타나게 된 것인데, 이 욕망을 조절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세상을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로 묶인 것으로 보게 하는 생태학적 인식이 무용에 적용되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집중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것, 신체와 기관, 신체와 공간의 유기적인 관계 자각하기,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닌 호흡이 자연적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이유진, 2013:84). ‘생태무용’은 홀리스틱 무용교육에서 생태학적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생태무용 **ecodance**는 생태학에서의 **eco**와 춤인 **dance**가 결합된 용어로서 생태적 삶에 대한 의식 공유를 기반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소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는 생태예술, 움직임 예술(오레지나, 2010:56)을 지칭하는 용어로, 생태사회의 생명성, 다양성, 관계성이 무용에서는 살림, 다음, 어울림으로 각각 나타난다고 본다.

홀리스틱 교육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계, 인간과 생태계와의 상호 연계성과 관계회복을 중시하는 ‘관계성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홀리스틱 무용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관계성은 논리적 사고와 직관과의 관계, 자아와 초월적인 자아의 관계, 여러 예술과 무용과의 관계, 다양한 학문과 무용과의 관계, 다양한 문화와 무용과의 관계, 소우주로서 인간과 지구 만물과의 관계, 춤을 추는 나 자신과 다른 이, 그리고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지닌다.

#### IV. 결론

홀리스틱 교육은 원자론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교육관에 반대하여 전체를 뜻하는 ‘홀리즘’을 바탕으로 인간의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거대 담론으로, 교육을 통해 지성, 정서, 신체, 창의, 미적 측면뿐만 아니라 거대한 우주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신성한 경험인 영성까지 배양하고자 하는 교육이다. 교과사이, 경험과 실제, 몸과 마음과 영, 소자아

와 대자아, 자신과 타인과 우주, 문화적, 사회적, 직관과 인식의 관계성 **connection**과 통합성 **inclusiveness** 그리고 전일성 **wholness**을 중시하는 교육이므로 홀리스틱 교육의 흐름 내부에서 예술교육과 신체활동은 매우 장려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홀리스틱 교육에서 영성은 밑그림이자 중심이 되는 교육목표이다. 다른 진보적인 대안교육과의 차이점도 바로 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홀리스틱 무용교육 **holistic dance education**’이란 하나의 전체로 통합된 자신에 대한 전일적인 앎까지 가져오고자 하는 교육으로 위기의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본질과 참자아를 깨닫고 다른 이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인간은 무용을 통해서 자신과 사회를 이해, 체험, 탐구하고 표현하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앎을 실천하고, 다른 이와 관계 맺고, 자신과 우주를 통합한다. 무용교육을 통하여 몸성, 감성, 지성, 창의성, 생태성, 영성, 공동체성, 관계성, 통합성을 발견하고 각 요소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데, 이 때 각 목표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성을 중심으로 그물망처럼 서로 얽혀있다.

홀리스틱 교육의 중심에 ‘영성’이 있듯이 홀리스틱 무용교육도 그러하다는 가설 아래에 ‘홀리스틱 무용교육에서의 영성의 의미와 이를 중심으로 한 목표’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홀리스틱 무용교육에서 영성의 의미는 ‘지금 여기’, ‘초월적 자아 발견’, ‘나와 타인을 받아들이기’, ‘신명’ 등이 될 수 있다.

무용에서 나타나는 영성을 중심으로 하는 홀리스틱 무용교육의 목표는 몸성, 감성, 지성, 창의성, 통합성, 공동체성, 관계성의 발현과 실천이다. 몸은 영성을 지니고 있으며, 영적인 몸은 감성을 깨우며, 지성은 직관과 무관하지 않으며 자기 확신과 같은 영성적 요소가 근본이 되어야 하고, 창의성은 몸성, 감성, 지성, 창의성, 영성의 통합적 작용이며, 생태성은 인간의 신체를 통하여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홀리스틱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 가르침의 배움이 되는 철학, 교육모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은우(2013), "기업 감성역량 강화를 위한 무용교육프로그램 개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김말복(2013), "무용예술에서 카타르시스, 라사, 신명비교논의: 미적 경험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한국무용예술학회, **무용예술학연구 제41집**, 1-30.
- 김경주(2013), "홀리스틱 교육의 인간론과 인성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의 교육현실을 참고하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 김영희(1999), **호흡기본**, 현대미술사.
- 김옥희(2014), "생태무용의 사회자본 형성 사례로서의 문화 창조 공동체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3)**, 117-130.
- 김종기(2010), "큰 이성으로서의 몸과 니체의 유물론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코기도 제 68호**, 341-375.
- 김주자(1999), "무용창작학습이 창의적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뉴욕대학교.
- 김화숙, 류분순, 신은경, 신정희, 임혜자, 오레지나, 한혜리(2013), **무용교육론**, 도서출판 한학문화.
- 김현규(2014), "미술교육과 영성교육에 대한 연구사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명지현(2000), "홀리스틱 교육에 의한 통합교육과정 구성",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_\_\_\_\_(2014), "홀리스틱 교육 시각에서의 인간의 구조적 분석과 영성교육", 한국 홀리스틱 교육학회, **홀리스틱교육연구 18(1)**, 51-56.
- 민경숙(2013), "홀리스틱 예술 통합 교육과 교육과정", 한국 홀리스틱 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박미선(2006), "무용교육이 유아기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박수현(2012), "움직임과 영성의 관계 탐색",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 예술 제6호**, 103-115.
- 박종길(2007), "인문학적 무용교육: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한국예술교육학회 학술대회, 23-44.
- 박지영 외(2014), "생태주의에 기초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포럼학회, **한국스포츠포럼학회지 21(1)**, 49-69.
- 박혜연(2013), "한국무용에서 심성 가르치기",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백현순(2010), "한국춤의 신명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한양대학교 우리춤 연구소, **우리춤 연구 제11집**, 9-30.
- 복미경(2003), "한국무용 학습이 아동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민영(2006), **홀리스틱 교육사상**, 서울학지사.
- 안병순(2005), "러반의 움직임교육을 통한 즉흥무용프로그램이 대학무용수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오레지나(2006), "무용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오레지나(2010), "에코댄스의 개념",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 예술 3집**, 51-60.
- 우희중 외(2009),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운주사.
- 유인실(2008), "창작무용 활동이 초등학생의 감성지수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 육난희(2015), "대학생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즉흥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이미영(2010). "전통춤 신명 연구", 한국무용사학회, **한국무용사학 제11호**, 7-29.
- 이유진(2013). "한국무용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본 생태무용(Ecodance)의 발생배경과 범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정모(2012). "뇌 과학을 넘어서:인지과학과 체화된 인지로", **뇌과학, 경계를 넘다**, 바다출판사.
- 정강윤(2006). "무용교육 경험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병훈, 목광수, 박라권, 하상협, 안명진(2012). **비판적 사고**, 경성대학교 출판부.
- 차수정(2008). "한국인을 위한 심리치료로서의 전통무용의 가치", 한국사상문화학회, **한국사상문화 제41권**, 333-358.
- Froebel, F. W. A. (1826). *Menschenziehung*, 서석남(역, 1995), **인간교육**, 이서원.
- Huxley, A.(1944). *The Perennial Philosophy*, 조옥경(역, 2014), **영원의 철학**, 김영사.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 Flake, C. L.(1993). Education 2000, A Holistic Perspective, Holistic Education : Principles, perspectives, and practices, *A book of reading based on Education 2000 : A holistic perspectiv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40-247.
- Csikszentmihalyi, M.(1990). *Flow*, 최인수(역, 2011), **몰입,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나다**, 한울림.
- Palmer, P. J.(1983). *To Know As We Are Known*, 이종태(역, 2009), **가르침과 배우의 영성**, IVP.
- Vaillant, G. E.(2003), *Aging Well*, 이덕남(역, 2010), **행복의 조건**, 프리티어.
- Schneiders, S. M.(1989). Spirituality in the Academy, *Theological Studies*, Vol. 50(4), 676-697.
- Read, H.(1943), *Education through Art*, 황향숙 외(역, 2007), **예술을 통한 교육**, 학지사.